

폴 볼커의 통화주의



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한창일 때 술통을 치우는 것이다.”

악명을 감수한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폴 볼커(Paul Volcker)는 과거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서 1970~80년대 내내 미국을 괴롭히던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베트남 전쟁 비용에 오일쇼크까지 겹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달러를 찍어냈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가치 하락에 크게 반발했지만, 미국은 우선 내수 경제가 급했다. 결국 달러를 금에 연동하여 그 발행량을 제한하던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까지 돈을 종이장처럼 뿌려냈고, 미국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해갔다. 이러한 위기에 소방수로 등극한 것이 폴 볼커였다.

볼커는 당시 기준금리를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20% 이상으로 올렸고, 그 여파는 엄청났다. 정리해고와 기업파산으로

실업률이 치솟았고 소비는 침체되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압박도 소용없었다. 농장주들은 트랙터를 동원해서 시위를 벌였으며 살해위험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러한 고통에도 혹독하게 고금리 정책을 밀어붙여 통화량을 잡아내지 않았다면, 미국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거머쥐어 놓아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고통스런 고금리로 미국은 정부의 개입 없이 부실기업들을 정리했고, 이후 경제가 안정기로 접어들어 1990년대의 호황기를 누리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

당시 고금리의 영향은 한국에도 예외가 없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보다 더했던 당시 연준의 금리가 20%대였기에 한국의 중소 금융권의 금리가 40%를 넘어서는 일은 흔했다. 도박판에서 같은 패 한 쌍을 부르는 ‘뺑’이라는 말에 빗대어 연 이자가 대출원금에 육박하는 ‘뺑뺑’이라는 표현도 그때 유행했다.

이렇듯 중앙정부가 각 경제활동 개체간의 약속(통화의 가치)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하면 이후 시장은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스스로 성장해 가는 기조를 통화주의라고 한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오랜 시행착오를 거

뚱한 끝에 적어도 세계 경제의 주요국들은 통화주의 정책을 통해 경제를 관리하게 되었다. 즉,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서, 차입자와 저축자가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외의 정책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국내에서 현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금을 쥐고 있기보다는 금이든 해외주식이든 실물을 보유하는 추세가 한동안 계속되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아파트 시장이다. 연이은 대출 규제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도 서울 집값을 올리는 데 한몫을 했다. 부동산이 너무 오르면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업의 생산요소로서의 토지 조달비용이 오르면 생산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다시 부동산이 오르는 악순환을 어디쯤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유동성을 완화하면 그 상당 부분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장의 특성이다. 남의 돈을 사실상 내 돈처럼 그냥 쓸 수 있는 시대를 보내면 그 대가는 늘 모두가 함께 치루어야 했다. 다소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통화주의 시대에 적응해야 할 때이다.

/로이에아시아컨설팅 대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회사는 명든다’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1949년부터 반세기 넘게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온 영풍과 고려아연이 이별의 끝자락에 서있다. 오랜기간 협력하며 성장해왔지만 결코 아름다운 이별은 아니다.

한달 전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의 존재감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단순히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분쟁을 펼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영풍과 고려아연의 인연은 남다르다.

영풍 전신 영풍기업사는 고 장병희 전 회장과 고 최기호 전 회장의 동업으로 탄생했다. 경북 봉화 연화광산에서 채굴한 아연광을 아연과 납 같은 비철금속으로 제

련하는 석포제련소를 운영했다. 이후 기업은 빠르게 성장해나갔고 생산능력 확장을 위해 아연광 수입에 유리한 바닷가 온산에 제련소를 구축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고려아연을 설립하고 2대 주주인 고 최기호 전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인연은 3세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의 경영을 맡으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을 비판했다. 이후 최 회장은 영풍·MBK파트너스에 대해 회사경영과 미래보다는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같은 싸움이 지분 확보를 위한 ‘썬의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승자의 저주’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분 확보를 위해 양측이 투입하는 자금만 약 5조원에 육박한다. 누군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갖게

되든 후폭풍은 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과도한 금액을 지불해 인수한 후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회사의 미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극으로 치닫으면서 고려아연과 거래해온 고객사들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MBK연합이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고려아연의 핵심기술진들의 이탈로 이어져 핵심 원자재 공급망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핵심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이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흔들려서는 안된다. 최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장문에서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창업세대에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이 최악의 결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7일 (음 9월 15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사촌이 가깝다. 48년생 뜻하지 않는 행운에 기분이 좋은 날이다. 60년생 성공한 사람 뒤를 따라가는 것도 한 방법. 72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대비. 84년생 열정을 갖고 인생 설계를 하자.
- 牛** 37년생 여러 곳에서 이득을 얻으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49년생 자손에게 좋은 소식이 오니 기쁘다. 61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찾자. 73년생 오후에 먼 길 운전엔 유의. 85년생 마음이 급해도 느긋한 사람과 소통을.
- 호랑이** 38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50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62년생 오늘 금전 거래는 다음으로. 74년생 회로애락을 너무 얼굴에 나타내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86년생 유유상종이라 했으니 베풀도록.
- 토끼** 39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 아니라 양을 배물자. 51년생 제 살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 63년생 원한된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들어온다. 75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픈 현실. 87년생 인색하다가 사기당할 수.
- 용** 40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52년생 강을 건너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해야. 64년생 계획 없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76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르니 좋은 생각만. 88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 뱀** 41년생 동업자로 이득생김. 53년생 시간이 자산이고 돈이지만 너무 따지다가 손실. 65년생 배우자에게 의지만 하다보면 자신을 좌절시키는 치명적 요소가 될 수. 77년생 눈앞의 실속을 보다는. 89년생 배우자의 즉흥적이고 다혈질을 못 고친다.
- 말** 42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54년생 배우자에게 관용을 바라지 말고 먼저 겸손을. 66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78년생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면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 90년생 낙천적인 생각으로 일을 진행해보자.
- 양** 43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55년생 확신이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주식투자는 글세. 67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계약서를 잘 살펴야. 79년생 조직에서 실력과 당연히 화합이 중요. 91년생 제사를 대충 하지 않도록.
- 원숭이** 44년생 성공이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56년생 버틸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68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80년생 언제나 남에게 존상 받는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다. 92년생 부자가 3대 가기가 힘드니 베풀자.
- 닭** 45년생 분노가 와도 폭발은 금물. 57년생 지치지 마라. 69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81년생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내가 뭔가 거슬러 줄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 93년생 너무 이성적이다 보면 고독해지기 쉽다.
- 개** 46년생 행운의 날이니 기분전환 된다. 58년생 가물에 비오듯 일이 순식간에 해결. 70년생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성에게 너무 바라지 않도록. 82년생 학업에 뜻이 있다면 힘이 들어도 해나가야. 94년생 없다고 흉대하지 말자.
- 돼지** 47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받는다. 59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뱉는 순간 커진다. 71년생 오피와의 거래가 잘된다. 83년생 사람의 인생도 역사이니 돌고 도는 인생이다. 95년생 돈 달라는 사돈으로 인해 현실에서 도망가고파.

김상희의四季 情 고픈 사회

세계적으로 저출산은 추세가 돼가고 있는 모양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러시아에서도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인 푸틴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부부생활을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외뉴스에 나왔다. 인구증가를 걱정하여 1가구 1자녀 출산을 고수해오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부터는 동 제도를 폐지함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동남아 여러 국가도 마찬가지여서 중장년과 노년 인구보다 젊은 청년층이 많은 베트남조차 젊은이들이 결혼은 해도 평균 한 가정당 4명 이상을 출산하던 풍토에서 2자녀 이하 또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살기 고단한 시대였음에도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그래도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지금의 팍팍해진 경제문제 등 세상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은 그리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요인도 있었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우선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다. 살기가 어려워도 가족 간의 끈끈한 정과 유대감 이웃과도 음식을 나누던 인정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 친척 집에 가서 며칠을 가서 먹고 자고 와도 실례나 별 흉이 되지 않던 그 시절과 지금의 뚜렷한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더불어 나누던 인정이 혼자 자기만의 사생활 존중 우선인 시대이다. 골목길을 나가서 뭐가 야단맞을 행동을 해서 길 가던 어른이 야단을 치면 눈 내리고 듣던 그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이다. 벌써 고전 드라마로 꼽힐 ‘응답하라 1988’ 시리즈가 인기를 끈 이유가 과거에 대한 향수만은 아닐 것이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 인(人)자는 혼자 살 수 없어 각각 사람이 서로 밝혀주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도그램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7				
	7	3						4
2		1	5		9			
	6	7	1	4	5			
	3	2	8	6	1			
	6		5	4				3
9				7	5			
	5							4

			4			5		
1	6					2		
2		3	7				4	
			6	3	7			
3	8					9	4	
		1	4	2				
	3		2	5		1		
		4				5		2
8			3					

4	7	8	9	6	5	2	1	
1	9	5	2	8	7	6	4	3
8	2	6	7	1	9	8	9	2
6	2	1	9	8	7	6	4	3
8	8	9	6	2	7	1	2	9
2	9	7	1	8	2	9	6	8
9	6	8	9	2	1	7	8	7
7	1	2	8	6	8	2	9	9
9	8	2	7	9	6	1	8	8

2	6	9	7	8	1	9	8	2
2	8	9	8	9	2	7	1	6
8	1	7	9	2	6	2	8	9
9	9	8	2	8	7	1	6	2
7	2	6	2	1	9	8	9	8
1	8	2	8	6	9	2	9	7
9	7	8	1	2	8	6	2	9
8	2	6	9	8	9	7	1	1
6	9	1	9	7	2	8	2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3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35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